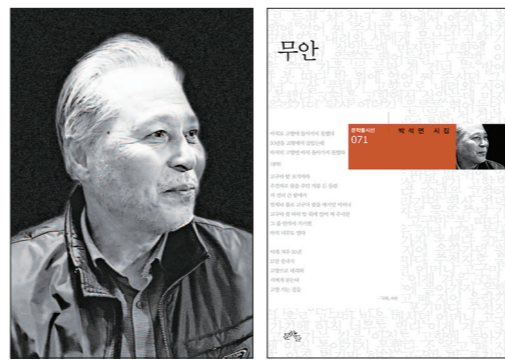


# 농민운동 펼치다 늦깎이로 첫 시집 출간 '눈길'

### 박석면 시인 고회 맞아 첫 작품 '무안' 문학들서 젊은날 김남주 시인 등 시단 인사들과 깊은 교감 청소년기부터 시 창작...“흙과 함께하는 시정신”

민중화 운동에 이은 농민운동을 줄곧 펼쳐온 사회운동가가 늦깎이로 첫 시집을 펴냈다. 주인공은 민중시인으로 진혼가나 조국은 하나다 등의 시로 널리 알려진 김남주 시인의 시집 발간에 관여했으나 정작 자신의 작품을 펴내지 못하다가 고회를 맞아 뒤늦게 작품집 '무안' (문학들 7)을 펴내게 된 전남 무안 출생 박석면씨다. 박 시인은 일찍 시인의 자질을 가지고 활동을 펼쳤지만 시집과 연이 닿지 않아 자신의 작품집을 갖질 못했다. 그는 사회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늘 시의 울타리 안에 머물렀다. 하지만 사회 운동의 파고가 너무 높았다.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된 계기는 '함성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자신의 친형인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의원), 김경길, 이강, 김남주 등이 투옥되면서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1974년 광주일고 2학년 때 유신철폐 운동을 전개했고, 이듬해 김상진 열사 추도식을 주도하면서 제적당했다. 감옥에서 나온 김남주가 광주 장동 로타리 인근에 카프카 서점을 열었다. 카프카 서점은 군부독재 치하의 유일한 서점이었다고, 박 시인은 이곳에서 김남주와 함께 숙식하며 책을 읽고 시를 썼다. 제적생으로 백수와 다름없던 그가 왕성하게 사회화와 문학발표회를 치러 낸 것 모두 이곳에 기지할 때 이뤄진 일이었다. 어쩌면 김남주와 카프카 서점은 박 시인의 또 다른 고향이자 지울 수 없는 내면일지도 모른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그는 1977년 고향 무안으로 낙향했다. 배종열 씨의 추천으로 전국단위 크리스



찬아카데미(의식화) 교육을 이수하고 농촌 문제의 본질, 관과의 싸움, 농민권력 향상 등을 위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이력으로 치자면 그는 농민운동사의 첫 장에 이름이 올라 있는 원로다. 그는 현재 광주·전남농민운동역사관 건립추진위원장이자, 한국농민운동은 물론 민주화운동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은 '함평고구마 사건'의 중심에도 그가 있었다. 농협 전남지부와 함평군 농협이 고구마 전량수매 공약을 불이행해 총 160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농민들이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군단위 자생적 계조직인 '무안농사형제계'를 조직

한 그는 1978년 선두에서 전국 73명의 전국 농민운동가와 8일간의 단식투쟁에 함께했다. 이른바 함평고구마 사건은 전국 단위 단식투쟁 돌입으로 변했고 결국 당국이 피해보상 금액 309만원을 보상하고 마무리됐다. 함평고구마 사건 이후 군에서 휴가 나왔을 때 5·18을 겪은 그는 1982년 전남대에 입학, 이후 탈반민중연구회와 인사대 극회를 결성하고 공연 등 문화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이처럼 박 시인의 삶은 고요하지 못했다. 시를 무리하고 할 여력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영진 시인은 시집 발문에서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17살 때부터 박정희 군부독재와 맞짱을 뜨던 학생운동의 리더였다. 열혈청년이자 시를 쓰던 시인이었다”고 한 것만 봐도 대충 박 시인이 어떤 했을지 미루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김남주 시인과의 인연이 드러난 시편들도 '카프카 서점'을 위주로 '전라도 시인' 등 7편에 이른다. 시인은 '형님,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위의 짐들이 다 할러 큰 빌딩이 들어서고/건설 회사 사육이 들어서고/고급 호텔이 들어서는데/뒤 김집과 카프카 서점만이 그 자리에 남아/하나는 중국집으로/하나는 아메리카노를 파는 커피숍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니/정말 신기하지 않나요/형님의 꿈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는 건 아닐까요?' (시 '카프카 서점' 일부)라고 노래한다. 앞서 언급했듯 발문은 이영진 시인. 표지는 박문구 시인(계간 '시와문화' 발행인), 인물 사진은 김경주 화가(전 동신대 교수) 등이 이 시집에 관여했다. 박문구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박석면과는 고교 시절부터 ‘울림문학동인회’를 만들어 함께 시의 발을 가꾸어 왔다. 그는 올곧은 생각을 굽히지 않는 성품이면서도 풍부한 시심을 지닌 사람이었다. 흙과 살면서 시쓰기를 그만둔 채 살아오는 모습을 항상 안타깝게 여겨왔는데, 나이 70이 돼서야 첫 시집을 내다니 참으로 기쁘다. 거짓이 없는 흙과 함께하는 시정신으로 그만의 시적 영토를 넓히길 빈다”고 전했다. 박석면 시인은 2022년 '무안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시집 수록작인 '동전 두 개', '가설극장', '꿈을 씹으면서' 등은 이미 1970년대 고교 재학 시절에 쓴 작품들이어서 등단 시기로 창작을 가능하면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다. 정재경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산수화에 새긴 자연과 현실 '오늘날 삶의 무게'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과 굽이치는 강, 들녘과 마을, 그 사이를 잇는 길. 한 화면 안에서 장대하게 펼쳐진다. 멀리서 바라보면 익숙한 산수의 풍경이지만, 화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늘의 도시와 삶의 흔적이 겹쳐진다. 하성흙 작가가 전통 산수화의 시선으로 동시대 풍경과 시간을 담아낸 개인전 '도원임중(道遠任重)' -갈 길이 멀다'를 서울과 광주에서 잇달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 2층에서 먼저 열리고, 17일부터 31일까지는 광주 동구 오월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다. 전시 제목인 '도원임중'은 갈 길은 멀고 깊어진 책임은 무겁다는 뜻이다. 작가는 한 개인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시간의 흐름과 삶의 무게,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건너야 할 시대의 과제를 광활한 산수의 형식 안에 담아낸다. 화폭에는 전통 산수화에서 불법한 산과 물, 안개와 구름이 펼쳐진다. 그 풍경은 과거의 이상향에 머물지 않고, 산동성이 따라 이어지는 도로와 대지를 잇는 다리, 촘촘히 들어선 마을 및 도시 등 개발과 삶의 흔적이 함께 포착된다. 자연과 인공, 기억과 현실, 전통과 현재가 하나의 지형 안에서 교차한다.



### 하성흙 개인전 '도원임중'...6년여 만 내면 화폭에 8일 서울 토포하우스·17일 광주 오월미술관 개막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대형 산수 작업 '영산강 전도'는 한 지역의 풍경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땅 전체를 조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굽이치는 물길과 겹겹의 산, 화면 곳곳에 놓인 생활의 흔적은 인간이 자연 안에서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세밀한 필선과 담담한 색채를 통해 산과 강, 들과 마을을 촘촘하게 쌓아 올린다. 전통 회화의 구도와 표현 방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현대 사회의 변화와 도시화의 풍경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이 자신만의 산수 세계를 구축해 왔다. 서울 인사동과 광주에서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회화 세계를 한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도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시간을 넘나드는 작가의 산수는 관객들에게 낯익은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사유의 장을 열 전망이다. 하성흙 작가는 “이번 전시는 ‘일이관지’라는 주제로 전시를 연 뒤 시리즈로 이어가는 작업으로, 6년여 만에 마련한 개인전이다. 마주해야 하고, 그려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는 심정을 다소 자조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개막식은 8일 오후 4시 토포하우스, 광주는 17일 오후 4시 오월미술관에서 각각 열린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보성 판소리 성지서 '풍류의 멋과 깊이' 선사

### (사)보성소리마당, 오늘 26회 정기공연...남도민요·판소리 등 선배

전통 소리의 본향 보성에서남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보성소리마당(이사장 한정아)은 1일 오후 2시 보성판소리성지(전남 보경군 화천면 영천실9)에서 제26회 정기공연 '보성풍류(寶城風流)'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비롯해 남도민요와 가야금병창, 설장구 등 다양한 전통예술 장르를 한 무대에 올려 보성이 간직한 소리 문화의 전통과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사회자 이유나의 진행으로 모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무대는 한정하·허수·박은애·양성숙·문소연·한명순이 함께하는 남도민요 '함양장정가, 진도아

리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황승욱과 김유빈이 출연하는 가야금병창 '적백기' 중 '화룡도', 이승호·박훈·최원영의 대금야생병창 무대를 이어간다. 또 박춘명 명창이 판소리 '심청가' 중 '씻던 자리'에 대목'을 들려주며, 최민희의 김중희류 설장구, 한정하·허수·황승욱·김명진·김유빈이 함께하는 남도민요 '신사철가'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가 열리는 보성판소리성지는 국가무형유산 서편제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전통예술 공간이다. 이번 공연은 보성이 오랫동안 이어온 판소리와 남도민요의 예술적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자산을 널리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사)보성소리마당은 1일 오후 2시 보성판소리성지(전남 보경군 화천면 영천실9)에서 제26회 정기공연 '보성풍류(寶城風流)'를 선보인다. 사진은 황승욱 광주시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의 무대 모습.

## 모차르트와 베토벤 잇는 고전 클래식 길잡이

### 광주시향, 10일 전남대 민주마루홀...클라리넷 김상윤 협연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클래식의 명곡들이 한 무대에서 울려 퍼진다. 모차르트가 남긴 따뜻한 위로와 베토벤이 완성한 환희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이번 무대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쌓아온 50년 음악 유산을 되짚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가장 위대한 계승과 발전의 관계로 평가받는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두 거장의 작품을 통해 클래식의 본질과 음악적 유산을 되새기는 무대를 마련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홀에서 제408회 정기연주회 '고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향의 대표 기획 시리즈인 '헤리티지(Heritage)' 일곱 번째 무대로, 창단 이후 축적해온 음악적 자산과 오케스트라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자리다. 공연은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으로 막을 올린다. 인간의 숙명적 갈등과 비장한 결단을 강렬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표현한 작품으로,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극적인 에너지가 인상적이다. 이어 세계적인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이 협연자로 나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K.622'를 들려준다.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협주곡으로, 투명하고 서정적인 선율 속에 따뜻한 위로와 평온함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을 연주한다. '춤의 교향곡'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작품



은 역동적인 리듬과 강렬한 추진력이 특징이다. 삶에 향한 의지와 환희, 해방의 감정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담아낸 작품으로 꼽힌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과 다가오는 베토벤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휘는 이병욱 광주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맡는다. 협연자 김상윤은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로, 뛰어난 기교와 음악적 해석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부채 크라프트, 반도렌, 실버스타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내악 단체 클림M 멤버로도 활약 중이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광주문화재단, 문화메세나 매칭 지원 마중물 역할

### 12개 예술단체(개인) 선정...민간 기부금 1억300만원 유치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공모 결과 총 12개 예술단체(개인)를 최종 선정했다.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은 예술단체(개인)가 기업·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기부금에 재단이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후원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

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2개 예술단체(개인)가 지역 기업으로부터 총 1억300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했다. 후원에는 디케이주식회사, (재)라인문화재단, 광주현대병원, 퍼스트비이비후과, ㈜세백방, ㈜정호산업, ㈜와사비아, ㈜에스케이텔레콤, ㈜10년후그라운드, ㈜그린하이텍, 건강연합의원, ㈜길

상일렉트릭, ㈜담양주류협동, 대한가정의학과, 박진피부비뇨기과, 반이비인후과, 웰스유외과의원, 디벨롭스도리즈, ㈜하든게이트가 참여했다. 재단은 사업 심의 과정에서 예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후원의 확산 가능성, 기업과 예술계 간 협력 구조,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회공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예술단체(개인)는 기업 후원금과 매칭 지원금을 활용해 공연, 전시, 창작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